

李退溪의 心理學과 眞西山의 《心經》**

高 令 印*

• 目 次 •

- | | |
|-----------------------------------|---|
| I. 이퇴계의 진서산 《심경》 연구와 평가 | III. 이퇴계가 진서산의 《심경》에 근거하여 밝힌 심학은 심학과 (心學派)의 심학과 다르다 |
| II. 이퇴계가 진서산의 《심경》에서 흡수하고 밝힌 심학사상 | |

이퇴계의 철학 체계 중에서 마음(心)에 관한 학설은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이퇴계는 진서산의 《심경》 연구를 통하여 《심경》의 마음을 논한 요지를 흡수하고, 마음과 이기(理氣)·태극(太極)·체용(體用)·선악(善惡)·격물궁리(格物窮理)·실천 등을 하나로 융합하고, 마음의 도야를 강조하면서 마음을 다스리는 학문을 형성하였으며, 불교의 선종이나 육왕학과(陸王學派)의 心學과 구별하면서 주자학의 사상을 계승 발전시켰다.

이퇴계(1501~1570)가 처한 조선 시대는 주자학이 동양 문화의 주류로 발전하였는데, 당시 중국과 외국의 주자학자들은 그들이 처한 사회적 여건에 따라 주자학을 계승 발전시켰다. 주자의 심학에 대해서 말한다면, 주자는 이(理)를 외재하는 본체로 보고, 「마음이 모든 이치를 갖추고 있으므로」(《孟子集註·盡心章句》) 사물에 나아가 이치를 궁구하고 본심을 밝혔으며, 이퇴계는 주희의 「마음이 이치를 갖추고 있다」

* 廈門대학 교수

** 1987년 제9차 퇴계학 국제 학술회의(홍콩 中文대학 주관)에서 발표한 것임

는 주장에 기초하여 「이(理)와 기(氣)가 합하여 마음이 되었다」(<言行錄·論持敬>, 《增補退溪全書》[四], 77쪽, 이하 《全書》로 줄임)고 보고, 주경(主敬)과 실천을 강조하여 마음을 다스리는 학문을 형성하였다.

이퇴계는 주자의 심학을 밝히는 과정에서, 眞西山(1178~1235)의 《心學》을 총체적으로 연구하였다. 어떤 의미에서는, 이퇴계가 진서산의 《심경》을 통하여 주자의 심학 사상을 계승 발전시켰다고 말할 수 있다. 이퇴계는 「《심경》을 얻은 뒤에 비로소 심학의 연원과 심법(心法)의 정미함을 알았다」(<言行錄·學問>, 《全書》[四], 169쪽)고 말하였다.

진서산은 이름이 덕수(德秀)로 복건(福建) 포성(浦城) 사람이다. 진서산은 남송(南宋) 말에 살면서 벼슬이 호부상서에 이르렀는데 정치 업적이 뛰어났다. 그는 주희에게서 직접 가르침을 받지는 못했으나 주자를 사숙(私淑)한 저명한 주자학자이다(졸작 《福建朱子學》 제2장 참고, 福建人民出版社, 1986년판). 《심경》은 진서산이 유가경전 《시경(詩經)》·《서경(書經)》·《논어(論語)》·《맹자(孟子)》·《대학(大學)》·《중용(中庸)》과 주돈이(周敦頤)·정이(程頤)·정호(程顥)·주희(朱熹) 등의 마음을 논한 구절에 諸家の 의론을 붙여서 편집하고, 자신이 찬어(贊語)와 주석을 달았는데, 요지는 마음을 바로잡고 근본에 힘쓰는 것으로, 주경(主敬)공부·사물의 이치 궁구·실천의 뜻을 밝혔다. 이밖에, 이퇴계는 진서산의 《심경》을 중시하여, 명나라 사람 정황돈(程篁墩)(敏政, 대략 1445~1500)의 《심경부주(心經附注)》도 또한 중시하였다. 지금 중국에 전해지는 책은 이퇴계가 제창한 뒤의 조선 판각본이다.

I. 이퇴계의 진서산 《심경》 연구와 평가

이퇴계가 진서산의 《심경》을 읽은 것은 젊은 시절부터 시작되었으

며, 노년에 이르러서도 중단한 적이 없었다. 이퇴계는 「황(滉)(퇴계의 이름)이 젊어서 서울에서 공부할 때, 처음으로 이 책을 여관에서 보고 구해 읽었다. 비록 중간에 병으로 그만두어 “깨달음이 늦어 이루기 어렵다”고 탄식하였으나, 심학에 느낀 바 있어 흥취가 일어나게 된 것은 이 책의 힘이었다. 그러므로 평생토록 이 책을 높이고 믿음이 《사자(四子)》(즉 《사서(四書)》)나 《근사록(近思錄)》의 아래에 있지 아니하였다」(〈心經後論〉, 《全書》[二], 326쪽)고 말하였다. 그래서 이퇴계는 평생 이 책에 대하여 「신명(神明)과 같이 공경하고 부모와 같이 높여」(위의 책, 328쪽), 그것을 주자학의 경전으로 삼아 반복하여 읽고 연구하였다. 이퇴계는 「나는 비둔하고 건문이 없는 사람이었는데, 다행히 《심경》과 《심경부주》에서 대략 공부의 맥락을 찾은 듯하였다. 그래서 근년의 공부는 대부분 이것이었다. 다만, 가만히 생각하고 송독함에, 《심경》에 있어서 이미 일생토록 공부해도 지식에 있어서 다 알지 못할 것이고 실행에 있어서 다 궁구하지 못할 것이었는데, 하물며 《심경부주》는 …… 《심경》에 잠심하여 공부가 쌓이면, 도에 들어가는 문이 이 밖에 다른 것이 없다. 나는 이 책에서 啓發받은 것이 한 둘이 아닌데, 지금 가지고 오지 않았으니, 마치 엄한 스승과 유익한 벗을 잃은 것 같다」(〈李子粹語〉, 《全書》[五], 274쪽)고 말하였다.

또 기록에 의하면, 「덕홍(德弘)이 일찍이 모시고 수곡(樹谷)에서 잤는데, 선생은 닭이 울자 일어나서 《심경》을 낭송하셨다」(〈言行通錄·學問〉, 《全書》[四], 27쪽). 「(선생은) 일찍이 상사(上舍)로 성(姓)이 황씨(黃氏)인 사람을 방문하여 처음으로 《심경부주》를 보았다. 그 책에 주(注)를 단 것이 모두 정자(程子)와 주자(朱子)의 어록이었다. 사람들이 보고 간혹 구두(句讀)를 나누지 못하였다. 선생이 문을 닫고 몇 달간 깊이 생각하고 반복해서 읽자 저절로 깨닫게 되었다. 만약 알지 못하는 곳이 있으면, 억지로 탐구하지 않고, 마치 내버려두다 보면 이해하게 되듯이, 때때로 다시 꺼내어 마음을 비우고 음미하였는데,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는 곳이 없었다」(〈言行錄·學問〉, 《全書》[四], 169쪽). 「선생이 도산(陶山) 완락재(玩樂齋)에 거할 때, 닭이 울면 일어나,

반드시 글을 한 차례 장중하게 외우셨는데, 자세히 들어보니 바로 《심경부주》였다」(〈言行錄·學問〉, 《全書》[四], 27쪽). 「선생은 《심경》을 가장 사랑하여 <후론(後論)>을 황돈(篁墩)의 책에 붙이고, 노재(魯齋)의 神明父母의 비유를 인용하였다. 西山의 뒤에, 오직 선생만이 이 책의 맛을 깊이 알았다. 서산의 경우에서 말하더라도, 후세의 자운(子雲)을 만나지 않았다고는 할 수 없다」(〈言行錄·學問〉, 《全書》[四], 170쪽).

이퇴계는 또 자신의 제자에게 진서산의 《심경》을 반복해서 읽고 연구하도록 가르쳤다. 기록에 의하면, 「윤강중(尹剛中)과 흠중(欽中)이 함께 도산에 가서 글을 배웠는데, 선생은 《심경부주》 중에 의심스럽고 어려운 곳을 가르쳐 주었다. 선생은 손수 옆에서 가르쳤다」(〈言行錄·學問〉, 《全書》[四], 26쪽). 그 문인이 「“《소학(小學)》·《근사록》·《심경》 중에서 어느 책이 공부하는 사람에게 가장 적합니까”하고 묻자, 선생이, “《소학》은 體用이 모두 갖추어져 진실로 읽지 않을 수 없고, 《근사록》은 의리(義理)의 정미함은 비록 상세하나 배우는 사람이 경계하여 발하는 곳은 결여된 듯하니, 초학자가 힘 쓸 것으로는 《심경》보다 더 적당한 것이 없다”고 하였다」(〈言行通錄·學問〉, 《全書》[四], 26쪽).

이퇴계 <言行通錄·雜記> 중에는 문인 덕홍(德弘) 등이 《심경》과 《심경부주》를 읽는 것과 관련하여 가르침을 청한 데에 대한 답변이 기재되어 있다. 「(선생이) 날이 아직 밝기 전에 일어나자 덕홍이 또 《심경》의 수신(修身)은 그 마음을 바르게 하는 데에 있다는 장(章)을 질문하였다. …… 밥을 먹은 뒤, 덕홍은 또 《심경》과 《악기(樂記)》의 예악(禮樂)은 잠시라도 몸에서 떨어져서는 안된다는 장(章)을 묻고, 《심경부주》의 충신(忠信)을 말하고 독경(篤敬)을 행한다는 설에 이르러서는, 심학은 마음속에 하나의 物이라도 있어서는 안된다고 하면서, 충신독경(忠信篤敬)에 이르러서는 오히려 생각하고 생각하여 잊지말아야 한다고 하는 점을 물었다. …… 그 다음날, 《심경》 강의를 마치고 그에게 말하기를, “지금의 부모되는 사람들은 언제나 《심경》과 《근사

록》을 강의하는 것이 잘못되었다 여기고 자체들을 꾸짖으며, 공부하는 사람들도 또한 세상의 의론을 두려워하여 이 학문을 강의하는 사람이 적다. 내가 《심경》을 강의하면서 편안하지 않을 때도 있으나 나의 학문을 버리고 다른 것을 강의하는 것은 용납하지 않는다」(《全書》[四], 1082쪽).

이퇴계와 그의 문인간의 편지 중에는 《심경》을 토론한 것이 매우 많은 편쪽을 차지한다. 예컨대 이퇴계는 <答崔見叔> 중에서 「《심경》에 오초려(吳草廬)가 “物을 밖에서 접하되 한가로이 내버려두며, 마음에 두지 않는다”는 말은 보내 오신 글의 내용과 똑 같습니다」(《全書》, 334쪽)고 했고, <答李宏仲問目> 중에서 말하길 「사람의 마음 가운데 이치에 맞고 절도에 맞는 것은 좋은 것이고, 이에 반대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정밀하게 살피고 한결같이 지킬 수 있으면 도심에 위반되지 않고 인욕에 흐르지 않습니다. 정자는 사람의 마음을 욕심이라 하였으나, 주자는 만년에 이 말이 오히려 미진함이 있음을 깨달아, 그래서 고쳐서 지금의 설을 따르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 이상은 《심경》을 논함」(《全書》[二], 234쪽) 등등, 이루다 열거할 수 없다.

이퇴계는 진서산의 《심경》을 주자학의 입문서 혹은 학문을 하는 길잡이로 보았다. 기록에 의하면, 선생은 「사람을 가르침에 소학(小學)을 먼저 하였고, 그 다음에 《대학》에 미치고, 그 다음에 《심경》에, 그 다음에 《논어》, 그 다음에 《맹자》, 그 다음에 주자의 책, 그런 뒤에 여러 경서에 미쳤다」(<言行通錄·學問>, 《全書》[四], 31쪽). 이퇴계는 「《심경》을 아침저녁으로 외우고 익히면서 충실히 공부하면, 이른바 냇물을 막는 기둥이요, 방향을 알리는 지남철이요, 어두운 곳을 밝히는 거울과 같이, 모두 나의 몸에서 그 실상을 볼 수 있게 된다」(<答鄭子中>, 《全書》[二], 28쪽)고 말했다. 이퇴계는, 진서산의 《심경》이 거울과 같아, 주자학의 정수를 그 안에 모두 압축하고 있다고 보았다.

이퇴계는 「내가 이 책을 보니, 그 경문은 《시경》·《서경》·《역경(易經)》으로부터 정자와 주자의 말에 이르기까지 모두 성현의 큰 가

르침이다」(<心經後論>, 《全書》[二], 328쪽)고 했고, 또 「《심경》의 내용은 모두 공자·맹자·염락민호(濂洛關閩)의 여러 철인들의 말이고, (앞의 책, 327쪽), 「《심경부주》는 濂洛關閩의 정수를 모은 연해(淵海)이다」(<李子粹語>, 《全書》[四], 274쪽)고 말했다. 이것은 진서산의 《심경》이 주희와 마찬가지로 공자와 맹자의 유가 사상을 집대성하였고, 염(周敦頤)락(程頤·程顥)관(張載)민(朱熹)의 이학(理學)을 집대성하고 있기 때문에 주자학의 학습에 기본 경전이 된다는 뜻이다.

이퇴계는 진서산의 《심경》을 왜곡하고 험뜯는 말을 비판하였다. 당시에 어떤 사람이 정황돈의 《심경부주》를 왕양명(王陽明)이 육구연과 주자가 처음에는 달랐으나 나중에는 같다고 보는 논점과 비슷하다는 주장을 보고, 이퇴계는 <심경후론>을 지어 《심경부주》의 뒤에 붙이고, 주자와 육상산의 다른 점은 「이쪽은 유학이고 저쪽은 선학이며, 이쪽은 바르고 저쪽은 사악하며, 이쪽은 공평하고 저쪽은 사사롭고 비뚤어짐」(《全書》, 327쪽)에 있다고 강조하였다. 이퇴계의 <심경후론>에 대하여 그의 문인 유성룡(柳成龍)은 《退溪年譜》에서 「선생은 《심경》을 높이고 숭상함이 더욱 지극하여, 《사서(四書)》나 《근사록》에 못지 않다고 여겼다.

황금계(黃錦溪) 준량(俊良)이 일찍이 글을 써서 그 책을 비웃으며 ‘진서산은 화려하나 실질적이지 못하며, 범난계(范蘭溪)는 무성하게 뻗어 있으나 절실하지 못하고, 황자계(黃慈溪)의 소견은 두 사람에게 비해 더욱 아래이며, 정황돈은 보는 바가 밝지 못하고, 선택함이 정밀하지 못하니, 선생께서 고쳐 깎고 바로잡기를 원합니다’라고 하였다. 선생은 답하는 글에서 그의 잘못됨을 엄격히 논하였다. 이에 이르러, 선생은 <심경후론>을 지었다. 심학의 연원을 밝히고 이단(異端)의 가시덤불을 헤치면서 그 심오한 뜻을 밝히고, 초려(草廬)와 황돈 등 여러 학자들의 설을 모두 정밀하게 분석하였다. 그리고 그들의 장점을 매몰시키지도 않고, 바른 학문의 길을 밝히면서, 갈림길에서 미혹되지 않게 하였으니, 선생이 후세를 위해 염려함이 지극하였다. 선생은 또 일찍이 중국 학술의 잘못됨을 걱정하였는데, 백사(白沙)와 양명(陽明) 등의 여러 설이

세상에 성행하면서, 정자와 주자로 전해지는 도통은 날로 매몰되고 어두워짐을 깊이 우려하고 탄식하지 않은 적이 없었다. 따라서 선생은 백사의 詩敎와 양명의 《전습록(傳習錄)》에 대해 논변을 함으로써 그 실상을 바로잡았다.(《全書》[四], 133쪽)고 말했다.

이퇴계는 진서산의 《심경》에 대하여 반복하여 읽고 연구하면서, 《심경》과 정황돈의 《심경부주》에 대하여 심혈을 기울여 교감을 하였다. 《심경》은 조선에 전해진 뒤, 처음에는 경주(慶州) 각본으로 간행되었다. 이것은 그 후에 이퇴계의 세심한 교감을 거치게 된다. 당시 집경전(集慶殿) 참봉(參奉) 한안명(韓安命)이 경주본 《심경》에 잘못이 많다고 생각하여, 이퇴계에게 교정해 주기를 청했다. 이퇴계는 손자 이안도(李安道)에게 「전날 교감을 본 경주본 《심경》을 어떤 사람이 빌려갔는데, 내가 찾아와서, 인편을 통해 한참봉에게 전하여, 그로 하여금 판본 중의 잘못된 곳을 바로잡게 하는 것이 좋겠다.(《言行錄·考終記》, 《全書》[四], 2411쪽)고 말했다.

이퇴계는 줄곧 「임종 전 며칠까지도 오자를 정정한 《심경부주》를 동도(東都)에 보내어 판본을 바로 잡게 하였다.(趙穆 <言行總錄>, 《全書》[四], 11쪽). 이퇴계는 <與大成幹之士敬聞遠應休·《心經》誤字疑義> 중에서 말하기를, 「살피고 교정을 본 것이 정밀하고 상세하여, 모두 그대로 베껴 적는다. 여기 있는 본(本) 중에서 일반적인 예로 교정을 본 외로, 중요하면서도 쉽게 생각해 낼 수 없는 것만 다음과 같이 적는다.(《全書》[三], 89쪽)고 말했다. 이어서, 그는 자기가 교정한 오자와 의문나는 뜻을 십 여곳 열거하였다. 다른 사람이 마음대로 늘이거나 줄이는 것에 대하여, 이를테면 그의 문인 「조목(趙穆)이 일찍이 《심경부주》를 교감하면서, 글자의 획이 잘못된 것은 도려내어 바로잡고, 주석을 깎고 줄여서는 안되는 곳은 즉시 보충하였다. 선생이 그를 책망하여 “선유가 지은 글을 어찌 자기 생각만으로 이처럼 거침없이 빼고 보태고 하는가? 어찌 금은거(金銀車)의 꾸짖음을 생각하지 않는가?」(<言行通錄·學問>, 《全書》[四], 27쪽)라고 말했다.

이퇴계는 진서산의 《심경》을 선양(宣揚)하면서, 그의 사람됨에 대

해서도 매우 높이 평가하였다. 이퇴계는 「진서산의 의론은 비록 때때로 문장의 기습(氣習)이 있으나, 그의 인품은 매우 높다. 이치는 밝고 조예는 깊어, 주문(朱門)을 훌륭하게 계승한 사람일 따름이다」(〈李子粹語〉, 《全書》[五], 454쪽)고 말했다. 이퇴계의 진서산에 대한 이런 평가는 근거가 있는 것이다. 《宋史·열전》권37 <진서산전(眞西山傳)>에서 말하기를 「조정에 있는 지 십년이 못되어, 주소(奏疏)가 무려 수십 만언이 되었는데, 모두 세상에 절실한 중요한 말이었으며, 강직하다는 명성이 조정에 진동하였다. 사방의 선비들이 그의 글을 읽으며 그의 풍채를 미루어 생각하였다. 벼슬하여 이르는 곳에는 은혜로운 정치가 두루 펼쳐지고, 스스로 부끄러운 말을 하지 않아 안팎에서 두루 칭송하였다. 도성의 사람들은 놀라워하면서 소식을 전하며 구름같이 관문(關門) 밖으로 달려가며 “진(眞) 직원(直院)이 오신다”고 소리쳤다. 과연 도착하자 길을 매워 모여서 구경하기를 그치지 않았다」고 하였다. 진서산의 학술은 그의 정치 업적과 마찬가지로 당시와 그 후세 조정에 주목을 받았다. 명(明) 영종(英宗) 정통(正統) 연간에 진서산은 공묘(孔廟)에 종사(從祀)하게 되었다.

그러나 중국 주자학 사상(朱子學 史上), 진서산과 그의 저작에 대해 평가한 사람은 아주 적다. 진서산의 《심경》이 주자학 사상 차지하는 위치와 가치가 정말로 이퇴계가 말한 대로인지 여부는 좀 더 연구를 기다리기로 하고 여기서는 논하지 않기로 한다. 그러나 「《심경》을 선양(宣揚)한 것은 사실상 이퇴계에서 시작」(〈言行通錄·부록〉, 《全書》[四], 16쪽)되며, 이퇴계의 심학(心學)이 《심경》에서 얻은 바가 많고 또, 《심경》이 퇴계학의 중요한 이론적 근원이었다는 점은 퇴계 자신도 인정하는 바이다. 《심경》이 국제 주자학사에 이렇듯 큰 영향을 주었기 때문에, 중국 학자로 하여금 진서산과 그의 《심경》을 중시하게 하기에 충분하다.

II. 이퇴계가 진서산의 《심경》에서 흡수하고 밝힌 심학사상

이퇴계에 의하면 마음은 단지 하나이니, 그것은 바로 理와 氣가 합하여 이루어진 마음이다. 이퇴계는 「무릇 마음이라고 말하는 것은 모두 이와 기를 겸하여 보는 것이다」(<答鄭子中別紙>, 《全書》[二], 18쪽), 「무릇 사람이 태어나면 똑같이 천지의 氣를 얻어 體로 삼고, 똑같이 천지의 理를 얻어 性으로 삼으며, 理와 氣가 합하면 마음이 된다」(<答奇明彦論改心統性情圖>, 《全書》[一], 463쪽)고 했다. 이것은 마음은 기로 이루어진 혈육의 마음과 이로 이루어진 知覺·神明의 마음이라는 이중성이 있는데, 혈육의 마음은 지각·신명의 마음이 담겨 있는 곳이며, 두 가지는 실은 하나의 마음이라는 말이다. 이퇴계의 이런 一心二重性論은 바로 진서산의 《심경》에 근본을 두고 있다.

그가 말하길, 「마음은 하나일 따름이다. 心中의 心자와 一心의 心자와 心先動의 心자가 어찌 두 개 세 개일 수 있겠는가? 또 대체로 ‘心’을 말함은 모두 方寸을 주로 해서 말한 것이다. 그러나 그 體와 用은 가슴 속에 가득 차고 천지 사방에 가득 찬다. 진서산이 이른바 “방촌에 거두어들이면 태극이 몸에 있고, 만 가지 사물에 흠어 놓으면 그 用이 무궁하다”는 것이다. 마땅히 이같이 활동적인 것으로 보아야지, 단지 하나의 혈육의 마음만이 마음이라고 생각해서는 안된다」(<答金而精>, 《全書》[二], 90쪽)고 하였다. ‘方寸’은 곧 혈육의 마음으로, 사람의 사유(思惟) 기관인 대뇌(大腦)이고, ‘방촌을 주로한다’는 것은 방촌의 주인, 즉 대뇌의 기능·사람의 정신력이다. 마음은 주재(主宰)작용이 있다는 점에서 말하면, 사람의 의식 활동의 주체는 단지 하나만 있을 수 있으니 「마음 하나일 따름이다」.

이퇴계는 진서산의 이른 바 「방촌에 거두어들이면 태극이 몸에 있고, 만 가지 사물에 흠어 놓으면 그 用이 무궁하다」는 것은 마음과 태극을 하나로 융합하여, 마음의 동정과 체용을 설명하였는데, 이것은 주자와

다르다. 이퇴계는 「마음이 조용하면 태극의 체가 갖추어지고, 마음이 움직이면 태극의 용이 움직이므로, 마음이 태극이라고 말한 것이다」(〈答鄭子中〉, 《全書》[三], 159쪽)고 말했다. 이렇게 말하면, 靜에서 動, 體에서 用에 이르기까지 마음이 태극이 되고, 마음이 곧 性임을 알 수 있다. 주희의 경우는, 마음의 體가 性이고, 마음의 用이 情이며, 태극의 理는 단지 性일뿐 情이 아니기 때문에, 마음이 태극이 된다고만 말할 수 있을 뿐, 마음이 태극이라고는 말할 수 없다. 이퇴계가 마음의 情이 마음의 性 가운데에 융합됨을 강조한 점은 주희가 性과 情의 구별을 강조한 것과 비교해 볼 때 진일보한 것이다.

이퇴계의 ‘理와 氣가 합하여 마음이 된다’는 의론은 한 걸음 더 나아가 인심(人心)과 도심(道心)의 문제로 연결된다. 그는 말하기를 「대저 사람은 理와 氣가 합하여 마음이 되는데, 理가 주가 되어 그 氣를 통솔하면, 마음은 조용하여지고 생각은 하나가 되어 저절로 잡념이 끼여들 틈이 없게 된다. 理가 주가 되지 못하고 氣가 이기게 되면, 마음이 어지럽게 얽히고 흔들려 끝이 없고, 사악한 생각과 망상이 서로 겹겹이 쌓여, 마치 물레방아가 빙글빙글 도는 것 같이, 한 순간도 안정을 얻지 못한다」(〈言行通錄·學問〉, 《全書》[四], 29-30쪽)고 말하고, 또 「이미 마음이 理와 氣를 겸하여 기가 이 속에 섞여 있지 않을 수 없다고 한다면, 사람은 굳이 생각과 동작에서 생겨나기를 기다리지 않아도 불선(不善)의 뿌리는 이미 마음속에 있으니 어찌 선하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答鄭子中別紙〉, 《全書》[一], 597쪽)고 했다. 氣로 이루어진 마음은 인심(人心)으로 그것은 잠재된 욕망을 가지고 있는데 물욕의 유희를 받으면 악의 방향으로 발전하기 때문에, 위태롭고 안전하지 않다는 말이다. 理로 이루어진 마음은 도심(道心)으로, 그것은 의리(義理)를 모두 갖추고 있으며, 또 의리를 깨달아 부단히 선을 완전히 하여 지선(至善)의 방향으로 발전한다. 따라서 마음은 선과 악 두 가지로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진다.

기왕에 마음이 선악 두 종류의 발전 추세를 가진다면 악을 피하고 선을 드러내어야 한다. 이퇴계는 「대저 인욕을 막는 일은 인심에 속하고,

천리를 보존하는 일은 도심에 속한다. 정임은(程林隱)의 <심학도(心學圖)>도 바로 이 점을 적시하고 있다. 그렇지 않다면 서산이 그 끝부분에서 하필 ‘극치존양(克治存養)과 교치기공(交致其功)’으로 결론을 내렸겠는가」(<答李平叔·《心經》贊戒懼屬道心謹獨屬人心>, 《全書》[二], 259쪽)라고 하였다. 이퇴계는 진서산 <심경> 중에 극치존양공부(克治存養工夫)로 천리를 보존하고 인욕을 막는다는 사상을 받아들였다.

이퇴계는 진서산의 극치존양(克治存養)은 존덕성(尊德性)을 위주로 한다고 여겼다. 그는 「진서산의 <심경>과 정황돈의 <심경부주>가 다같이 주자의 존덕성을 근본으로 삼고 도문학(道問學)을 겸하여 닦도록 서술하고 있다」(<閑居次趙士敬等諸人唱酬韻十四首> 제9수의 주, 《全書》[-], 75쪽)고 말하였다. ‘존덕성’과 ‘도문학’은 주희와 육구연(陸九淵) 두 파가 치학(治學)과 수양 방법을 놓고 논쟁을 벌인 문제이다. 주희는 「리가 기보다 먼저 있어」 이가 우주의 본체라고 생각하고, 문학(問學)과 卽物窮理를 주장하고, 독서와 주경(注經), 그리고 외물에 대한 관찰로 내심의 지식을 계발시키는 것을 중시하였다. 육구연은 「마음이 곧 이치」이기 때문에 마음이 곧 우주의 본체라 생각하고, 존덕성하여 본심을 밝히면 반드시 즉물궁리하고 독서를 많이 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였다. 진서산은 <심경>에서 공자·맹자·정자·주자가 성명천덕(性命天德)에 관한 말을 비교적 많이 수집하였으며, 결론에서도 주희의 <존덕성명(尊德性銘)>에 관해 논하고 있다. 그리고 주희의 자주(自註)를 들어, 주희의 내제자 정윤부(程允夫)가 원래는 「도문학(道問學)」으로 서제의 이름으로 삼으려 하였으나, 주희가 「존덕성재(尊德性齋)」로 바꾸도록 권하고 그를 위해 명(銘)을 지은 사실을 언급하고 있다. 정황돈은 <심경부주> 중에서 진서산의 ‘존덕성’사상을 진일보 발휘하여 「‘존덕성’이 근본이고, ‘도문학’을 겸하여 닦는다」고 지적하였다.

이퇴계는 진서산과 정황돈의 책에 나오는 ‘존덕성’과 ‘도문학’에 관한 논술은 모두 「주자의 뜻」(<心經後論>, 《全書》[二], 328쪽)이라고 여겼다. 이퇴계가 보기에 양자는 어느 한 쪽을 내버릴 수 없으며, 이것은 공자·맹자·정자·주자 등 유가학자들이 일맥으로 이어온 관점이다.

이퇴계는 「공자가 “文을 널리 배우고 禮로 단속하라”고 말하고, 자사(子思)가 “덕성을 높이고 학문으로 말미암는다”고 했으며, 맹자가 “널리 배우고 명쾌하게 밝히려고 한 것은 장차 이것을 가지고 되돌려서 단속함을 말하려는 것이다”고 말하였다. 두 가지가 서로 필요로 함은 마치 수레의 두 바퀴와 같고, 새의 두 날개와 같아서, 하나를 없애고도 갈 수 있거나 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것은 실은 주자의 말이다. 우리 유가의 가법(家法)이 본래 이와 같다」(같은 책, 327쪽)고 했다.

이퇴계의 이 말에 대하여, 어떤 학자는, 퇴계가 주자학 입장에 섰을 때의 하나의 표현이고, 실제로는 진서산·정황돈의 방향을 따라, ‘존덕성’쪽으로 기울어져, 육학(陸學)의 경향이 분명하다고 하였다. 이러한 분석은 이퇴계의 원뜻에 부합되지 않는다. 이퇴계는 <答李剛而> 중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심경》 끝에 오로지 ‘존덕성’만을 주장하고 ‘도문학’쪽을 억눌렀는데, 그의 뜻은 세상의 선비들이 입으로 말하는 것만을 숭상하고 실천하는 데 대만하는 폐단을 바로 잡는 데 있었다. 그 뒤에 별도의 말을 하나 내세워, 주자가 초년에는 육상산을 공격하였으나, 만년에 스스로 그 잘못을 깨달아 육상산과 합하였다고 생각하고, 이에 《도일편(道一編)》을 저술하여 그의 말을 증명하였다. 이에 진건(陳建)이라는 사람이 그가 세상을 속이는 것에 분개하여, 《학부통변(學菴通辨)》을 지어 황돈의 잘못을 배척하며, “황돈의 학문이 끝내 육씨(陸氏)의 선학(禪學)에 빠진 것은 숨길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심경》이란 책은 황돈의 학술이 틀렸다고 하여 비방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책 끝에 인용한 주자의 말은, 실은 선생이 그 가운데에 약간 치우친 바가 있음을 스스로 깨닫고, 자신을 경계시켜 문생들을 격려한 것으로, 육씨와 합하고자 하는 말은 아니다. 그리고 황돈도 여기에 대해서 역시 육씨의 한 마디 말이라도 그 사이에 끼워 넣지 않았다. 읽는 사람들은 다만 그가 세상을 구하려는 깊은 뜻만이 있고, 두렵게도 이단(異端)에 귀의한 일이 없음을 알게 되면, 이 책이 높일 만하고 믿을 만한 점은 옛날과 같을 것이다」(<李子粹語>, 《全書》[五], 274-275쪽). 이퇴계가 보기에 진서산과 정황돈이 ‘존덕성’을 중점을 두

어 논술한 것은 그 제자들의 실제 상황을 보고 말한 것으로, 「자신을 경계시켜 문인들을 격려하는 것이지, 육씨(陸氏)와 합하고자 한 것은 아니며, 「그는 세상을 구하려는 깊은 뜻을 가졌으며, 「일찍이 육씨의 한 마디 말이라도 그 사이에 끼워 넣은 적이 없었다. 이퇴계의 이러한 분석은 정확하다.

‘존덕성’과 ‘도문학’을 겸하여 닦으려면, 마음을 도야해야 한다. 그 방법은 ‘주경(主敬)’이다. 정황돈은 <심경부주서(心經附注序)>에서 「《심경》은 경(敬)자 한 글자를 벗어나지 않는다. …… 이 책을 읽으면 마치 상제(上帝)가 하림(下臨)한 것 같다」고 말했다. 그래서 그의 《심경부주》는 「敬을 말하는 말에 특히 더욱 상세하다」(<심경부주서>). 이퇴계는 《심경》과 《심경부주》 중의 ‘주경’에 대하여 특별히 의론을 제기했다. 그는 일찍이 시를 지어서 말하길 「文公은 평소에 문하생을 가르쳐, ‘주경’을 닦으면 방과 마루에 들 수 있다 하였네. 만약 진씨의 ‘경(經)과 정씨의 ‘주(注)’를 공부하면, 옳은 방향을 바로 가리켜서 응당 양(羊)을 잃고 갈림길을 탄식하지는 않으리」(<閑居次趙士敬等諸人唱酬韻十四首> 제9수, 《全書》[一], 75쪽)라고 했다.

이퇴계는 또 말하길 「진서산은 敬과 靜이 하나라고 말했다. …… 敬자 공부는 ‘動’과 ‘靜’을 관통하여 靜을 말할 필요 없이 스스로 족하다. …… 그러나 그 말은 조금이라도 어긋나면, 禪에 빠지기 쉽다. 지금 남헌(南軒)은 그렇지 않다. ‘敬이 곧 주정(主靜)이라는 뜻을 알며, 또 뜻을 ‘경’에 오로지 하여, ‘주정’이 깊은 맛이 있음을 느껴, 선에 흐르지 않고, 주자와 정자의 본 뜻을 얻어 옛것을 알 수 있었다. 서산은 이와 같이 찬탄하였다. 배우는 사람들은 마땅히 남헌이 어떻게 ‘경’이 바로 ‘주정’의 뜻임을 알았는지를 추구하여야 하고, 또 마땅히 남헌이 敬자에 전념한 까닭과 어떻게 하여 ‘주정’의 깊은 맛이 있음을 깨달았는지를 추구하여야 하니, 이것으로 힘쓰고 힘써서 더욱 공부하면 되지, 마음을 動과 靜을 나누는 데에 헛되이 써서는 안된다」(<答李平叔·<心經> 贊戒懼屬道心謹獨屬人心>, 《全書》[二], 259 -260쪽)고 했다.

주정(主靜)은 무욕(無欲)공부를 통하여 靜의 태극(太極)경계를 체현

한다. 주경(主敬)은 외물의 유혹을 힘껏 피하고 심신을 도야하며, 정력을 윤리 도덕에 집중하여, 治國 平天下에 도달한다. 그래서 진서산은 《심경》에서 敬과 靜은 하나라고 말했다. 그러나 주정(主靜)은 불교와 도교의 적정(寂靜) 무위(無爲)의 혐의가 있어, 「그 말이 조금이라도 잘못되면 禪에 흐르기 쉬운 것이다. 이퇴계는 진서산의 ‘敬과 靜은 하나이다’는 기초 위에서, 주경(主敬)이 ‘動과 靜을 관통한다’고 보고, ‘敬은 성학(聖學)의 처음이자 끝이다’(〈敬齋箴〉, 《全書》[一], 210쪽)고 생각하였다. 이퇴계는 「진서산도 극치존양(克治存養) 교치기공(交致其功)을 말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말할 때 어찌하여 불가하겠는가. 그 공부함이 정성스럽고 한결같기를 극진히 하면, 계구(戒懼)와 근독(謹獨)이 또한 정밀할 것이다’(〈答李叔獻〉, 《全書》[一], 379쪽)고 말했다. 이퇴계의 <琴間遠東溪惺惺齋>시에서는 말하길 「정밀히 하고 한결같이 하여 마음을 전하는 데는 敬이 중요하니, 최대한으로 깨어 있으면 저절로 밝다. 단지 일용공부(日用工夫)를 더하여 있게 하고, 명칭하게 싹을 뽑는 것은 배우지 말라’(《全書》[三], 41쪽)고 했다. 이퇴계가 보기에 「일이 있고 없고, 뜻이 있고 없고를 막론하고, 오직 敬을 주로 삼아야 한다’(〈答金惇叙〉, 《全書》[二], 70쪽). 주경(主敬)을 통하면 이치에 대한 존경과 두려움이 생겨 심신을 거두어들이고, 법칙에 벗어나지 않고 법도에 잘못되지 않는다. 이것은 신앙으로 선험적인 이치를 확인한 것이다.

주경(主敬)은 窮理致知와 하나로 연계되어 있어, 혹자는 말하길 ‘주경’은 ‘궁리치지’를 위해서이고, ‘궁리치지’는 또 실천을 위해서라고 한다. 이퇴계는 「경(敬)으로 근본을 삼고, 이치를 궁구하여 앎을 이루며, 몸을 돌이켜 실천을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묘한 心法이며 道學을 전하는 요체입니다’(〈戊辰六條疏〉, 《全書》[一], 186쪽)고 말했다. 사물에 나아가 이치를 궁구하는 것은 知이고, 몸을 닦음에 몸을 돌이켜 실천하는 것은 行이며, ‘주경’은 처음과 끝을 관통한다. 이렇게 ‘주경’을 하며 이치 궁구와 실천 두 가지가 서로 나아가면 이것은 지행일치(知行一致)이다. 이퇴계의 <言行通錄·學問> 중에는 이러한 기록이 있다. 「선생은 일찍

이 《심경부주》는 義理를 가지고 대략 귀먹은 데서부터 통하였다고 논하였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지금 사람은 대략 뱃속에서부터 어려워하며, 또한 기꺼워하는 사람이 있으니, 더욱 탄식스럽다고 하였다. 재삼 이것을 말하며, 세상 사람들이 도에 나아가기 어려움을 답답해하여, 스스로 그 근심이 안색에 나타남을 깨닫지 못하였다 (《全書》[四], 34쪽). 이퇴계의 이러한 언행일치 사상은 그의 治心學의 근본이다.

Ⅲ. 이퇴계가 진서산의 《심경》에 근거하여 밝힌 심학은 심학파(心學派)의 심학과 다르다

주희 이후의 주자학자들은 대체로 모두 주희의 ‘심법’을 엄격히 지켜왔다. 예컨대 남송 말년의 진순(陳淳)은 「아침저녁으로 연구하고 궁리하여 심법의 연원을 탐구하고 性學의 오묘한 이치를 연구하였다」(張伯行 <陳北溪文集序>, 《正誼堂續集》권3). 명초(明初)의 진성(陳晟)은 《心學圖》를 지어 심법에 대해 많은 말을 했다. 진서산의 《심경》과 이퇴계의 심학은 주희의 ‘심법’을 엄격히 지킨 전형적인 예이다. 이른바 ‘심법’은 사람들의 언행이 반드시 마음을 거치고, 이 마음은 ‘주경’이 아니면 관리할 수 없음을 말한다. 주희의 문인 황간(黃幹)은 주희의 ‘심법’을 논할 때, 「도에 나아가는 요점은 여러 가지이나, 오직 완전히 이 마음이 부끄러움이 없고 두려움이 없어야 비로소 움직이고 조용하고 말하고 말없음이 모두 이치에 맞음을 볼 수 있다」(張伯行의 <黃勉齋文集序>, 《正誼堂文集》권7에서 인용)고 말했다. 이것은 불교의 선종이나 陸王學派의 심학과는 다르다.

이퇴계는 「성현의 학문은 마음에 근본을 두어 사물을 꿰뚫고 있는 까닭에 좋을 좋아하면 마음으로 그것을 좋아할 뿐만 아니라 반드시 일을 행함에 선을 이루어, 마치 여색을 좋아하면 반드시 그것을 얻기를 추구하는 것과 같이 하며, 惡을 싫어하면 마음으로 그것을 싫어할 뿐만 아

나라, 반드시 일을 행함에 악을 제거하여, 마치 나쁜 냄새를 싫어하면 그것을 없애기를 힘쓰는 것과 같이 한다. 양명(陽明)의 견해는 오로지 본심에 있어 털끝 하나라도 밖으로 사물에 관련됨이 있을까 두려워하였기 때문에 단지 본심에 나아가 知와 行이 하나라고 생각하였다(<傳習錄論辯>, 《全書》[二], 259쪽)고 말하였다. 이것은 주자학파의 심학(심법)은 인식론이자 도덕수양론으로, 마음을 다스리는 학문이며, 심학과 심학은 본체론으로, 마음을 만사 만물의 근원으로 보았다는 말이다.

청나라 사람 장백행(張伯行)이 명대의 저명한 주자학자 진진성(陳眞晟)의 심학과 심학파의 심학이 다름을 논한 말은 여기서 진서산과 이퇴계의 심학을 평가하는 데에도 적용할 수 있다. 장백행은 말하길, 「누가 나에게 묻기를, “포의(布衣) 진(陳)선생의 글은 심학을 말한 것이 많은데, 근세의 사상가들은 심학을 이단의 가르침이라고 말하는데, 선생께서는 그 말이 옳다고 생각합니까?”라고 하여, 내가 그에게 대답하여, “횡거(橫渠)는 책을 볼 적에 마땅히 그 말을 종합하여 작자의 뜻을 알아야 된다고 말했다. 만약 뜻을 알지 못하고 그 말을 따른다면, 성현의 말이 이단에 의해 흠쳐지고 어지러워짐이 어찌 한 두 가지겠는가? 공자가 도덕을 말하고, 노자도 또한 도덕을 말했지만, 도덕을 말한 것은 같으나 도덕의 내용은 같지 않다. 우리 유가에서 마음을 말하는데, 불교도 또한 마음을 말하고 있다.

공자는 마음이 하고자 하는 바를 따라도 법도를 넘지 않는다고 하였고, 맹자 또한 학문의 도는 다른 것이 아니라 내버려진 마음을 구하는 것일 뿐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부처는 마음이 바로 부처라고 말했다. 이것은 부처가 마음에 종사하여 배우는 것을 안 것이다. 우리 유가의 공부는 그렇지 않아, 이치 궁구를 시작으로 하여 힘써 행함을 임무로 삼고, 마음으로 체득하여 집과 나라와 천하에 실지로 실천하면 타당하지 않은 것이 없다. 그 본연의 곳을 말하는 경우에도 이 마음을 말할 따름이다. 요순으로부터 주공과 공자에 이르기까지, 공자에서부터 주돈이·정이, 정호·장재·주희에 이르기까지, 이것을 버리고 학문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없었다. 사상채(謝上蔡)씨는 「항상 두려워 할 법은 유

가에서 말하면 敬이요, 불교에서 말하면 覺이다”고 말하였다. 선생이 말한 마음은 그것이 活變(活變)하여 출입에 따로 때가 없으며, 주경(主敬)이 아니면 조종할 수 없음을 말한 데에 지나지 않는다.(<陳布衣文集序>, 《正誼堂文集》권7)고 하였다. 이것을 보면, 진서산과 이퇴계가 마음을 말한 것과 심학파가 마음을 말한 것은 글자는 같지만 내용은 달라, 마치 공자와 노자가 모두 도덕을 말했지만 그 함의가 다르고, 자사(子思)와 육구연(陸九淵)이 모두 존덕성(尊德性)을 말했지만 그 본질이 다르며, 한유(韓愈)와 주희가 모두 국통(國統)을 말했지만 그 방법이 서로 달랐던 것과 같다.

이퇴계의 심학은 마음을 다스리는 학문이다. 그가 진서산의 《심경》에 근거하여 밝힌 심학은 최종 귀결처가 지행일치로서, 봉건 윤리의 도덕 사회를 실현하는 것이다. 이퇴계가 말하길, 「대저 심학은 비록 여러 갈래이나, 요점을 종합하여 말하면 인욕을 막고 천리를 보존하는 두 가지 일에 지나지 않을 따름이다.(<答李平權·《心經》贊戒懼屬道心謹獨屬人心>, 《全書》[二], 275쪽)고 말하고, 또, 「《심경》이란 책은 인욕을 막고 천리를 보존하는 일이 아닌 것이 없으니, 그대는 오로지 정밀하게 하고 한결같이 하여, 일단 욕심이 생기면, 곧 마땅히 四勿의 깃발을 흔들어 三軍을 물리쳐야 할 따름이니, 다시 어찌 다른 방법이 있겠는가.(<答李平叔>, 《全書》[三], 275쪽)라고 말했다. 이퇴계가 이른바 인욕을 막는다는 것은 마음과 몸을 닦아 봉건 윤리 도덕을 갖춘 완전한 인격에 도달하는 것이다. 그는 심학을 하나의 거울로 삼고, 마음속은 의리(義理)를 위주로 하여, 마치 明鏡止水와 같이 되고자 했다.

진서산은 「이 마음이 마땅히 명경지수와 같아야 하며, 마른 나무가 죽은 것 같아서는 않된다. 거울이 밝고 물이 잠잠하면, 그 바탕은 비록 조용하나 사물을 비출 수 있으니, 이것은 조용한 가운데 움직임도 포함하고 본체 가운데에 작용을 포함하는 것이다. 사람 마음의 묘함은 바로 이와 같다.(<眞西山文集》권18)고 말했다. 진서산이 생각건대 불교 선종의 마음은 ‘마른 나무가 죽은 것과 같다’. 이퇴계는 <雨晴述懷>라는 시에서 「하늘이 한 조각 밝은 촛불을 켜니, 정황돈의 비결과 진서산의

경서로다. 시내의 바람과 달은 사람이 보기를 요구하는데, 만고의 청산은 여전히 푸르네」(《全書》[一], 62쪽)라고 하였다. 그들이 보기에, 내심은 主敬하고 專一하며, 神明이 밝고, 그 이치가 모두 갖추어지고, 사물을 응접함에 일마다 이치에 맞으니, 이것은 분명히 심학과의 마음이 마른 나무와 같이 죽어 완전히 텅빈 것과는 다르다.

이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이퇴계의 심학은 강렬한 실천 정신을 내포하고 있다. 이퇴계와 그의 제자는 대부분 모두 진심으로 지도하고 실천하며 공론과 고증을 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고, 국가사업에 전심전력을 기울였다. 이퇴계는 「심법의 요체는 그 연원이 순임금이 우임금에게 명한 말에서 비롯되니, “인심(人心)은 위태하고, 도심(道心)은 은미하니, 오직 정밀히 하고 한결같이 하고서야 진실로 그 가운데를 잡으리라”고 하였다. 대저 천하로서 서로 전할 때에는 받는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편안하게 하려는 것인데 그 부탁하는 말이 정치보다 더 급한 것이 없겠거늘, 순임금이 우임금에게 신신당부 타이름이 이 몇 마디에 지나지 않았으니, 이 어찌 학문과 덕을 이루는 것으로써 정치의 큰 근본으로 삼은 것이 아니겠는가? 정밀히 하고 한결같이 하며 중용에 이르는 것은 학문의 큰 법이니 큰 법으로 큰 근본을 세우면 천하의 정치는 다 이로부터 나오는 것이다」(〈戊辰六條疏〉, 《全書》[一], 184쪽)라고 말했다. 이퇴계는 일생중, 조정에서 벼슬을 하든 지방에서 일을 하든 간에, 언제나 시의(時宜)에 맞는 치세의 방법과 개혁 조치를 제시하고, 어진 정치를 제창하고, 교육을 강구하여, 정치 업적이 탁월했고, 역대 문인들의 많은 존경을 받았다.

(이 치 수 역)